

# 해남군, 지역소멸 대응 맞춤형 건강관리 시행

## 22개 마을 인지기전 프로그램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혈압·당뇨 등 노인맞춤관리도

해남군이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나섰다.

관내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으로 해남군은 지난해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비전 아래 10개 전략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지역소

멸대응기금 3억6000만원을 확보해 추진 된다.

보건진료소 권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인지 활동 등 건강행태를 개선해 내 집에서 건강하게 거주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운동, 영양, 인지기전 등 3개 분야로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운동 주 2회, 영양과 인지기전은 각각 주1회씩 총 16주간 운영된다.

지난해 기초건강검사와 건강행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1080명 중 46.7%인 504명이 혈압·당뇨 등 건강 이상이 있었으며 노인 영양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양 교육과 식이 지도를 건강행태 개선 항목에 추가했다.

건강이상 소견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고혈압·당뇨질환자 118명에 경동맥 초음파, 안과검사 등 합병증 예방 검진비를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매년 증



해남군이 지역소멸대응 목표로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해남군 제공

가하고 있고 웰다잉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해남공룡박물관, 캐릭터 공모

해남군은 해남과 공룡을 주제로 독창적인 캐릭터 발굴을 위한 제4회 전국 캐릭터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공룡박물관을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일러스트·드로잉·손그림·스케치 등)와 캘리그래피(타이틀·카피·명대사 등) 등이다.

1인당 응모 가능 작품은 3매 이내로 작품규격은 8절지 이상 종이 재질(한지·도화지·미색지 등)로 표현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손글씨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초등생 이상은 신청할 수 있고 해남공룡박물관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13일까지며 같은 달 26일 입상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남군·해남공룡박물관 홈페이지 및 공룡박물관 운영팀(061-530-5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 기후변화 대응 조림 사업 착수 완도군, 사업비 14억원 투입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96ha에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편백나무 등 8만4천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올해 조림사업은 크게 섬 지역 산림 가꾸기(36ha), 황칠 특화림 조성(16ha), 일반 조림(30ha), 유휴 토지 조림(4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10ha)으로 구분된다.

섬 지역 산림 가꾸기 사업은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녹화 및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가 많은 완도에 적합한 사업이다.

유휴 토지 조림은 규모는 작으나 군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임야가 아닌 한계 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 복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을 식재한다.

남부 지역 식재 시기는 보통 3~4월이 적기였으나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2~3월로 시기가 앞당겨져 군은 조림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 사업의 발주를 3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 영암군, 원스톱 민원 서비스

영암군은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민원(건축·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약식의 심사를 받는 사전심사청구제와 관계 부서간 복잡한 협의 절차를 군민을 대신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

신청 절차는 군민이 간략한 정보만(대지위치·사용용도·사용면적 등)을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또는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를 군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존 민원서비스 처리 방식에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을 더해 실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해 군민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완도군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3년도 조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군 제공

## 타이거즈 '전설 3인방' 강진청자축제서 뭉친다

### 김응용·김성한·선동열 참여 개막식 참여 축제 성공기원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저희가 함께 기원합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3인방'이 강진을 찾는다.

강진군은 기아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던 야구 레전드 김응용 전 감독, 김성한 전 감독, 선동열 전

야구 감독이 오는 23일 강진청자축제 현장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제51회 강진청자축제를 방문해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하멜커피 시음, 빛 조형물 라운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진군수 재임 시절 기아 타이거즈 광주 홈경기 가운데 하루를 골라 시구에 나섰는데, 4년 연속 홈팀이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 프로

야구의 전설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이고 모쪼록 불편함 없이 마음껏 축제를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빛과 불을 콘셉트로 한 다채로운 겨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빛 조형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MZ 세대들의 인스타그램 '인생샷' 명소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김운복 기자

## 완도 연안여객선 섬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 '최우수'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발의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기초의회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2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허궁희 의장이 전국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자치입법 분야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을 위한 제도다. 주민들이 여안여객선을 이용하면서 기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다.

지원 대상은 8개 읍·면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다. 기상악화로 육지의 숙박시설에 체류한 경우 1일 4만원까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조례가 공포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섬 주민 174명이 이용했으며 총 796만원이 지원됐다. 완도=최경철 기자

## 강진군청 누리집에 웹소설 연재 정찬주 '깨달음의 빛, 청자'

강진군은 강진의 대표 문화자원인 청자를 활용한 웹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를 연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웹소설은 23일~11월30일까지 매주 목요일, 강진군청 누리집(홈페이지) '소통과 참여-역사소설' 메뉴에서 구독할 수 있다. 총 40회가 연재된다.

소설은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가 중국 월주의 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강진 도공들이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켜 마침내 강진이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되는 대서사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을 집필한 소설가 정찬주씨는 화순군 이양면 이불재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 누리집에 '이순신의 7년'을 연재했으며 다산의 사랑, 못다 부른 명랑의 노래 등 역사 인물의 삶을 소설로 다뤄왔던 인기 작가다.

웹소설 연재가 종료되면 12월 중순경 작가를 초대해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극단 청자와 협의해 연극으로 제작하는 등 문화콘텐츠 육성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운복 기자

## 농수특산물 포장재·택배비 지원 진도군, 7억원 투입

진도군은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7억원을 투입, 농수특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000원 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농수산유통팀(061-540-1133)에 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